황훈규 黃勳奎 형을 추모하며

김진홍(68 년)

대학시절 부터 훈규형과 나는 체형도 다르고 성격도 달랐다. 제 삼자의 생각으로는서로 상극 이라고 생각 할지 몰라도 우리 둘 사이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인지 서로 잘 어울렸다. 형은 성격이 낙천적이고 온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는사람 같았고 나는 항상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그를 늘 부러워 했다. 형은 작은 키이나 약간 뚱뚱했고 나는 피골이 상접해서 깡마른 타입이었다. 어느때 부터인지는 몰라도 형은 혈당이 높아져서 당뇨병에 관련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한번은 페블비취에서 골프를 치기 위해서 모너레이 베이에 있는 호텔에서 형부부와 우리부부가 방을 하나씩 얻어서 투숙한 일이 있었다. 호텔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와 형의 방에 들러보니 형은 인슈린 주사기를 들고 난리가 났다. 식사 후 혈당이 400 이라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다. 형은 골프를 칠 때도 사탕 혹은 캔디바를 가지고 다녔다. 저 혈당으로 인해 세상이 파랗게 보인 적도 있다고 했다. 저 혈당 쇼크가 오면 회복이 빨리 안되고 그 후유증이 오래 간다고 했다.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 할 때는 항상 스테이크를 시켰다. 혈당이 올라가면 문제가되니까 탄수화물을 피하고 단백질로 보충 하는 것이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친구로서 지내고 있는데 그중 형은 한번도 싫은 소리를 나에게 한적이 없었다. 항상 솔직하고 나서지 않고 자기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었다. 그러면서도 정직하고 위선적이지 않았다. 마우이섬의 카나팔리 쉐라톤 호텔에서 졸업 45 주년 68 년 동기 동기 모임이 있었을 때이다. 우리는 행사 하루전에 도착해서 근처의 다른 호텔 에서 투숙 하기로 할 때였다. 물론 방 두개를 내가 예약을 하였고 방 하나는 오션푸런트이고 다른 방은 오션이 보이지 않는 방이었다. 형은 기꺼이 오션이 보이는 방을 우리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다른 방을 사용했다. 물론 내가 방을 예약했지만 나는 그때 참 미안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훌륭한 PMR 의사로서의 형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베클리에서 살았고 나는 내 전공의 과정을 끝내고도 수십년을 그대로 Georgetown Medical school Hospital 이 있는 북 버지니아에서 살았다. 그래도 우리는 삼백 오십마일이라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서로 방문했다.

형은 슬하에 세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가 학업에 충실했다. 아들들에게 평소에 말하기를 "너희들은 장래에 절대로 의사가 되지 말라" 라고 하였다 한다. 그런데 역설적인 결과로 큰아들은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조지타운 의대를 나왔다. 또 둘째는 웨이크 훠레스트의대를 졸업했고 셋째는 조지 워싱톤 의대를 졸업했다. 이 세 효자 아들들이 각기 방사선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전문 의사가 되었다. 세 아들이 정착한 곳이 모두들 북 캘리포니아 Sacramento 근교라서 형은

은퇴후 웨스트 버지니아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손주들이 사는 그곳, 엘크 그로브 Elk Grove, California 로 이사했다. 그 이후로는 우리는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동창회가 있으면 가끔 만날 수 있었다. 최근에는 내 몸에도 이상이 생겨서 물어볼 것도 있고 또 안부도 궁굼하여 서너달 전에 전화 통화를 했었다. 그때 형은 십오년전에는 후배 이기진(72) 의 집도로 성공적인 힘든 심장수술을 받은 후인데도 골프도 치고 건강했다. 오랜기간 당뇨병을 잘 다스려서 말초 혈관이나 신장에도 합병증이 없는것으로 보였다. 나는 그의 몸 건강상태가 내것보다 좋다라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서 예전과 같이 부부 동반으로 골프도 하고 또 여러번 요청도 있었던 형이 사는 곳을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이었다. 이렇게 갑자기 서거 하다니 참으로 슬프다. 그리운 훈규 형! 우리는 이제 이 생에서는 더는 보지 못하게 되었네요.
안녕히!